2019.10.30(수)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10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1. 금융시장 반응

□ **정책금리 25bp 인하 결정**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였고 정책결정문 변경*은 다소 hawkish하였던 반면, **Powell 의장 기자회견** 내용중 일부**가 **dovish**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달러화**는 **약세**

* 정책기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완화적 표현(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expansion)을 삭제하고 "적절한 금리경로를 모색할 것(assess the appropriate rate path)"으로 대체

** 향후 정책금리를 인상하려면 "매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지속(really significant move up in inflation that's persistent)"되어야 한다고 발언

ㅇ **미국채 금리**는 美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상회(1.9% vs. 1.6%e)에도 불구하고 dovish한 BOC 정책회의* 등으로 하락한 다음 FOMC 결정 이후 낙폭을 축소하였다가 Powell 의장 기자회견 이후 장기물을 중심으로 다시 낙폭이 확대

* 정책결정문에서 "캐나다 경제가 향후 시험대에 오를 것(will be increasingly tested)이며 하반기 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Poloz 총재의 기자회견도 다음 정책회의에서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

ㅇ **주가**는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로 상승

ㅇ **미달러화**는 Powell 의장의 dovish한 발언 등으로 약세를 보였고, **금가격**은 금리 하락 등으로 상승

– **유가**는 美 원유재고 예상밖 증가(+570만배럴 vs. -10만배럴e) 등으로 하락

□ **한국지표**는 달러화 약세로 원화(NDF)가 소폭 강세를 보인 반면 한국 기업 주가*는 대체로 하락하고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도 확대

* (일중 주가변동률) POSCO -0.7%, 한전 3.9%, KT -0.4%, SKT 0.0%, 국민은행 -0.3%, 우리은행 -2.5%, 신한은행 -2.1%

일중 뉴욕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변화[1)]

		2018말	2019.9말	10.29	10.30	전일대비
미국채 (%)	Tsy, 2yr	2.49	1.62	1.64	1.60	-4bp
	10yr	2.68	1.66	1.84	1.77	-7bp
주식 (point)	DJIA	23,327	26,917	27,071	27,187	0.4%
	S&P500	2,507	2,977	3,037	3,047	0.3%
외환	Dollar Index	96.2	99.4	97.7	97.5	-0.2%
	USD/EUR	1.1467	1.0899	1.1112	1.1148	0.3%
	JPY/USD	109.7	108.1	108.9	108.8	0.0%
상품	WTI, U$/bbl	45.4	54.1	55.5	54.9	-1.1%
	Gold, U$/oz	1,282.5	1,472.4	1,487.6	1,494.5	0.5%
한국물	NDF, KRW/USD	1,114.0	1,198.1	1,166.8	1,165.1	0.1%
	외평채 가산금리	68.1	55.9	51.9	52.2	0.4bp
	CDS프리미엄	38.9	33.4	28.8	29.4	0.6bp

주: 1) 뉴욕 시간 16:30 기준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정책금리 25bp 인하 결정**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였고 **정책결정문 변경**은 **다소 hawkish**하였던 반면, **Powell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일부 dovish**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정책금리 조정과 관련한 표현* 등 **정책결정문 변경**은 **다소 hawkish**하였던 것으로 해석

*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expansion)' → '적절한 금리경로를 모색할 것(assess the appropriate rate path)'

○ **Powell 의장**의 **기자회견**은 hawkish한 내용과 dovish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소 dovish**한 것으로 평가

현재의 정책기조가 적절하고(in good place)하고 앞으로 유지될 것(likely to remain appropriate)이며 경제전망에 상당한 재평가(material reassessment)가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축소시키는 hawkish한 발언으로 평가

반면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하려면 매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지속되어야 한다(really significant move up in inflation that's persistent)는 발언은 dovish하였음

<주요 투자은행 코멘트>

- (Goldman Sachs) 금리 25bp 인하 및 정책결정문에서의 향후 정책기조 관련 표현 변경(act as appropriate → assesses the appropriate path)는 당사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소비와 물가에 대한 평가 유지 등이 예상보다 다소 hawkish하였음. 기자회견 초반 2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요할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need to see a really significant move up in inflation … We are not thinking about raising rates now)는 Powell 의장의 발언에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

- (Citi) 금일 연준 금리 인하는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였음. 정책결정문의 문구 조정(act as appropriate → assess the appropriate path)과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적정 상태에 있으며, 현 스탠스 유지가 적절해 보인다"는 Powell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insurance cut이 75bp 인하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다소 hawkish하였음. 반면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큰 폭의 인플레이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Powell 의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정책기조는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당사는 연준이 현 금리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향후 인플레이션이 약화될 전망이어서 2020년말까지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JP Morgan) 금리 인하는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act as appropriate" 문구 수정은 컨센서스에 비해 다소 hawkish하였음. 정책방향 문구 수정 및 Powell 의장의 경제상황 재평가 언급은 금리 방향에 대해 중립적이지만, 당사는 미약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 추가 25bp 인하 전망을 유지함